

미·일 통상마찰의 정치·경제적 분석(Ⅳ)

유 경택*

차 례

서 장 분석의 목적과 개요

제1장 미국의 보호주의와 미·일 통상마찰

제1절 미국통상법의 동향과 특징

제2절 미국의 무역적자와 보호주의

제3절 일본의 대미비교우위의 변화

제2장 미·일 통상마찰의 정치적 분석

제1절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제2절 품목별 미·일 마찰의 구조분석

제3절 금후의 미·일 마찰의 전개시나리오

제3장 무역수지 불균형과 마찰의 원인분석

제1절 미·일간의 산업경쟁력 격차

제2절 마찰의 원인과 구성분분석

제4장 미·일 구조협약의 무역수지의 균형화

제1절 미·일간의 경제구조 파라미터의 추계

제2절 일본의 대미수출특화도와 산업내무역

제5장 요약과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미·일 구조협약의 무역수지의 균형화

미·일 무역수지 불균형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양국의 산업경쟁력의 격차로부터 오는 것으로, '8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의 매크로

*상공자원부 공업배치환경과 화공사무관

경제구조적 요인(재정적자·IS Gap)에 기인하여 그 적자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일 구조협약에서 양국이 합의한 항목중에 저축·투자 밸런스 항목을 취해서,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양국의 경제구조 파라미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검토해 본다. 그리고 일본의 대미 수출특화도를 시산하여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일본이 미국과의 산업내 무역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 본다.

제1절 미·일간의 경제구조 파라미터의 추계

미·일 구조협약에 나타나 있는 의미는 미·일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서 주로 제도의 개혁, 양국 경제구조의 조정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무역수지 관계식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S-I) + (T-G) = X - M$$

S : 민간저축

I : 민간투자

T : 세수

G : 정부지출

X : 수출

M : 수입

일국의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에 더하여 채무

이자의 지급 등 대외 소득 이전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화된 모델로 저축·투자·재정적자와 무역수지와와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러나 주의하여야 할 점은, 예를 들어 정부지출 G를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저축 S나 세수 T도 증가한다고 하는 점이다. 국민소득의 증가가 저축·세수에 돌려질 것인가 소비·수입증가로 이어질 것인가의 파급효과는 각국의 한계소비성향, 징세성향, 수입성향 등에 의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다음 식에 근거하여 미·일 양국의 이들 계수의 추정을 해보면 양국의 경제구조성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c(\text{한계소비성향}) = \frac{C - C(-1)}{GNP - GNP(-1)}$$

$$t(\text{한계세성향}) = \frac{T - T(-1)}{GNP - GNP(-1)}$$

$$m(\text{한계수입성향}) = a \frac{M}{GNP}$$

다만, a=수입의 소득탄성치

m(한계수입성향)의 추정을 위해서는 우선 a(수입의 소득탄성치)의 추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관계식에 근거하여 이 값을 구해 보자.

*수입의 소득탄성치(a)의 추계
(관계식)

$$\text{Log(IMQ)} = a \cdot \text{Log}(Y) + b \cdot \text{Log}(RP)$$

a : 수입의 소득탄성치

b : 수입의 가격탄성치

IMQ : 수입수량

RP : 상대가격(수입가격/국내가격)

(데이터의 출처)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of 1990

수입수량, 수입가격, 국내가격, GNP

(추계기간) 70년대 : '75~'80

80년대 : '81~'88

(추계결과 : 미·일의 수입의 소득탄성치)

국 가	70년대	80년대
일 본	1.1634	1.0931
미 국	2.3324	2.2354

c,t,m의 관계식에 기초하여 양국의 구조 파라미터를 시산한 후 그 동향을 정리해 놓은 것이 <표 4-1>이다.

<표 4-1> 미·일의 구조 파라미터의 동향

		1978	1982	1986	1988
日 本	c	0.8506	0.6919	0.4771	0.5769
	t	0.7021	0.4813	0.4955	0.3811
	m	0.1142	0.1275	0.0819	0.0714
美 國	c	0.5542	0.8473	0.8892	0.6510
	t	0.3498	0.0784	0.3093	0.1914
	m	0.1961	0.1858	0.2026	0.2103

다만, 3년간의 평균치, 실질 베이스(1985=100)

데이터의 출처 IMF : 소비, 수입, GNP, 미국의 세수

일본은행 : 일본의 세수

미국의 경우, 일본보다 한계세성향이 낮고 소비성향·수입성향은 높게 되어 있다. 한계 징세성향이 낮다고 하는 것은 재정적자와 결코 무관계한 일이 아니다. 한계저축성향이 낮다(한계소비성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IS Gap(저축부족)과 관계되어 있다. 한계수입성향이 높고 수입의 소득탄성치가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의 소득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와 수입의 증가로 연결되어 가기 쉬운 체질이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그것은 물론, 무역적자가 되기 쉬운 체질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보다 한계징세성향이 높고 소비성향·수입성향은 낮은 편이다. 그리고 수입의 소득탄성치가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일본의 소득의 증가는 저축증가·세수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무역흑자가 되기 쉬운 체질인 것이다.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양국의 체질개선이 필요시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제2절 일본의 대미 수출특화도와 산업내 무역

무역수지의 균형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분야에 불균형이 생기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고 의의있는 일인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일본의 대미 무역구조의 지표로서 대미 수출특화도를 시산해본 후에 논의를 진행해 보고 싶다.

$$(관계식) NX = \frac{X - M}{X + M}$$

다만, NX : 일본의 대미 수출특화도
 X : 대미수출
 M : 대미수입

(산업분류·자료출소) 통상백서 각년도
 (분석기간) 1964-1988

이들 관계식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 <표 4-2>이다.

관계식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특화도는 1부터 -1까지의 값이 나올 수 있다. 수출특화도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한다. -1이면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0에 가까울수록 수출입량이 같아 미·일간에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양국간에는 산업내 무역이 그다지 성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업제품 중에서 항공기와 화학품은 미국의 대일수출이 대일수입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고, 식료품과 원연료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일수출은 1에 가까울 정도로 강한 수출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 일본의 대미수출도 마찬가지로 편향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진

<표 4-2> 일본의 대미 수출특화도의 동향

연도 분야	1964	1970	1976	1982	1988
식료품	-0.658	-0.717	-0.838	-0.902	-0.932
원연료	-0.959	-0.969	-0.987	-0.987	-0.954
일반기계	-0.535	-0.273	-0.064	-0.272	-0.566
전기기계	-0.541	-0.589	-0.748	-0.617	-0.640
수송기계	-0.077	-0.820	-0.883	-0.911	-0.718
자동차	-0.273	-0.917	-0.952	-0.992	-0.970
자동차부품	1.000	1.000	1.000	1.000	1.000
항공기	-1.000	-1.000	-1.000	-0.702	-0.641
정밀기계	0.396	0.414	0.609	0.644	0.702
금속품	0.570	0.616	0.623	0.398	0.029
철강	0.949	0.941	1.000	1.000	0.747
화학품	-0.702	-0.428	-0.448	-0.538	-0.347
섬유	0.978	0.924	0.756	0.600	0.231
경공업품	0.679	0.402	0.109	0.224	0.144

다만, 1) 수출특화도가 1이든가 -1의 경우는 수출입액이 적어서 통상백서의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2) 가공기계는 금속가공기계를 의미한다.
 3) 수송기계는 자동차·자동차부품·항공기를 제외한 것이다.

술한 분야 이외에는 거의 0.5 이상의 수출편중현상이 보여진다. 일본이 미·일 통상마찰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원인의 하나는 낮은 산업내 무역거래량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선진국끼리는 산업간 무역보다 산업내 무역이 증가할 것인 데도 미·일간의 무역패턴에서는 그렇지 않은 점이 보여진다.

제1장에서 진술했듯이 수출특화도는 비교우위의 지표로서도 사용된다. 일반기계와 금속가공기계의 경우는 그것에 해당되는 케이스이다. 일반기계의 대미수출특화도는 1964년의 -0.535에서 1988년에는 0.595까지 상승하고 있다. 금속가공기계는 1964년의 -0.91에서 1988년에는 0.793까지 상승하고 있다. 그 이외는 다소의 기복은 있지만 1964년 수출특화도가 높았던 품목은 1988년까지 계속해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낮았던 품목은

지금까지 낮다.). 일본이 1964년경 이미 공업제품의 분야에서 미국보다 높았었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역시 산업내 무역이 진행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1988년의 일본의 대미수출 상위 5개품목의 대미수출특화도를 보면 거의 0.6 이상으로 수출에 편중되어 있다.

	대미수출점유율	대미수출특화도
자 동 차	26.8%	0.970
일 반 기 계	21.2%	0.595
전 기 기 계	18.8%	0.686
정 밀 기 계	5.1%	0.762
자 동 차 부 품	4.9%	1.000
합 계	76.8%	

원연료를 수입하고, 공업제품은 수출한다고 하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소위 수직적 무역패턴에 닮아 있다.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산업내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시되는 이유이다.

제5장 요약 내지 결론

미·일 통상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자유무역주의에서 관리무역,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통상법은 그러한 경향을 강하게 띠어 가면서 개정되어 왔다. 미국이 왜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져가는가는 대폭적인 무역적자에 기인하고 있는 점이 많다. 마찰이 일어나기 쉬운 분야는 일본의 대미 현시비교우위가 상승하고 있는 분야이다. 마찰이 일어나 어떤 형태로든(주로 일본의 대미수출 자주규제) 결말이 나면 그 분야의 비교우위는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요체는 통상법을 제정하는 의회와 의회로부터 위양된 권한에 근거하여 통상정책을 수행하는 대통령·

행정부와의 상호관계에 있다. 최근의 정치과정에서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보호주의적 자세를 취하기 쉬운 의회와, 보다 강력한 보호주의자의 연합을 저지하기 위해 타협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자주 보여진다. 하원의원보다 자유무역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상원의원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보호주의적으로 되는 것일까. 정치변수로서는 무역소위원회의 멤버인 것이, 경제변수로서는 출신주의 제조업 수출관련 비율, 실업률이라는 요인이 상원의원이 보호주의적으로 되는지 어떤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일 통상마찰은 그 법적근거에 있어서 3개로 대분되며, 그 통상정책 결정과정 내지 관계하는 액터도 달라져 왔지만 주목하여야 할 점은 마찰의 개시에 있어서는 언제나 관련 이익단체로부터의 제소 내지 청원이 있다고 하는 점이다. 미·일 통상마찰의 양상은 미국의 수입규제(일본의 수출자주규제)→미국의 수출확대(일본에의 시장개방압력)→미국의 적극적인 시장공략(결과지향형의 개별적 상호주의)의 형태로 추이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개의 패턴에서 다음 패턴으로 명료한 결착을 지어나가며 변화해 왔다고 하기보다는 전의 마찰 패턴이 존재하면서 새로운 마찰 패턴이 생겨나왔다고 말할 수 있으며 현재의 마찰은 다양한 형태의 마찰 패턴이 동시 병존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미국의 대일무역 수지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경쟁력의 격차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스스로의 매크로 경제구조적 요인(재정적자·IS Gap)도 첨가되어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조적 요인의 개선 없이는 무역수지균형화는 달성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일본의 대미수출특화도는 거의 모든 공업제품에서 높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과의 산업내 무역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마찰에서의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일본의 도매가격, 수출가격, 수입가격은 1982년을 경계로 떨어지고 있는 경향에 있지만 소비자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내외가격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으로부터의 반덤핑제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외가격차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일 마찰이 지금부터 어떻게 전개되어갈 것인가. 미통상법의 동향, 무역적자의 동향 개관과 산업경쟁력의 강화, 구조요인의 해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인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에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게다가 무역분야에서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그 대상도 무역분야는 물론 비무역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농산물분야, 금융·지적소유권·서비스·첨단기술분야로의 마찰의 참여화가 예상된다.

미·일간의 통상마찰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궁리가 필요시 되어진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스스로의 산업 경쟁력의 약화와 매크로 경제구조적 요인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국을 공격·비난하기 전에 이들의 개선에 전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라는 프라이드와 책임감을 갖고 확장지향적·캐치업적 산업전략에서 공존공생의 모색과 소비자 중심의 산업정책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미국에 대신하여 자유무역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의 시장 제공, 기술제공, 특히 GATT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야자와 정권이 제창하는 내수확대를 통한 생활대국의 실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일본의 매크로 밸런스의 개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길로 가는 걸음을 뒷받침해 주는 국내정책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大尾>

<참고문헌>

- Bela Balassa & Marcus Norland(1988) "Japan in the World Econom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Albert E. Burger(1990) "U.S. Trade Deficit Causes, Consequences & Cure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William E. Perry(1988) "The ITC", JETRO
- 佐藤 英夫(1991) 「日米經濟摩擦」 平凡社
(1989) 「對外政策」 東京大學 出版會
- 竹中 平藏(1991) 「일미마찰의 경제학」, 일본경제신문사
(1987) 「대외불균형의 매크로 분석」, 동양경제신문사
- 秋山 憲治(1990) 「미국통상정책과 무역마찰」, 同文館
- 通商産業調査會(1990) 「일미구조문제협의 최종보고」
- 總合研究開發機構(1991) 「일미의 새로운 경제보완관계」
(1989) 「일미유럽의 경제마찰을 둘러싼 정치과정」
- 通商産業省(1964-1991) 「통상백서」
- 日本銀行(1991) 「경제통계연감」
- IMF(1991),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OECD(1991), "National Accounts"
- 日本經濟新聞社(1989) 「일미마찰-미크로심층」

우리도로에는 우리나라 타이어